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며 화합과 협치를 외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 정치권 김해 봉하마을 총집결

더민주·국민의당 당선인 총출동  
안철수 “새시대 선구자로 자리매김”  
일부 시민 국민의당 향해 욕설 눈살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는 등 야권의 화해와 통합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 역시 화합과 협치의 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쏟아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잔디광장에는 시민 6천여명이 몰려 고인을 추모했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4·13총선 당선인 90여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당선인 30여명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추도식을 찾았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정동영 국민의당 당선인은 불참했다.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 금강산 관광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단시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립한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폐쇄했다”며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핵심은 단합과 통합”이라며 “나의 아집이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가져오진 않으나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추도식 참석에 앞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새 시대를 시작하고자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 했다”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시대를 만개시켜 노 대통령을 새 시대의 선구자로 역사에 자리매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도식 후에는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면담했다. 과거에는 순차적으로 면담을 했지만, 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국화꽃을 손에 들고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 정신을 다지겠다는 취지에서 동시에 면담한 것이다. 권 여사는 이날 “외워서 감사하다.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 기쁘다”며 “내년에도 꼭 와 달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런 화합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당 인사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퍼부어 추도식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주최 측이 “과격할 언행을 삼가달라”는 당부도 있었지만 일부 추모객들은 안 대표를 향해 “이명박 측근이 왜 왔나”, “대권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노골적인 욕설도 퍼부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해 “호남에 가서 아부나 하라”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당 지도부는 추도식 이후 경호를 받으며 현장을 떠나야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추도식은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 성찰을 요구하는 의미가 컸다”며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전시회·콘서트...광주·전남 추모행사 잇따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각종 추모 행사가 열린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소통의 기억·연결·보관’이라는 주제로 추모행사를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추모 행사는 ‘인간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범한 일상 속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으로 마련됐다.

주요행사는 노 전 대통령과의 소중한 기억들과 인연을 찾아 서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인 ‘소통의 보관·연결’과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 ‘소통의 기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역 작가들이 25일까지 광주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수집·기록한 뒤 ‘기억보관소, 당신의 기억을 보관합니다’라는 주제로 전시할 계획이다. 또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 노트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한 사람씩 적어

가면서 다이어리를 완성하는 ‘노랑 다이어리’ 프로젝트도 31일까지 열린다.

작가들이 게릴라 방식으로 일정한 크기의 캔버스에 분필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담은 프로그램인 ‘기억의 분필’도 28일까지 진행된다. 재단은 완성된 작품을 사진으로 찍은 뒤 전시회를 연다.

광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소통의 보관·연결’ 프로젝트들은 ‘기억의 향기’라는 이름으로 모아지며 이달 27일~29일까지 동구 장동의 카페 헤르츠에서 전시된다.

28일 오후 3시부터는 서구 풍암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기억의 멜로디 콘서트’도 펼쳐진다.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도 지난 20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추모음악회를 개최했고, 봉하마을 참배 행사도 잇따라 마련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경쟁률 전남 2.6대 1

광주는 8개 지역구에 8명 신청...전국 평균은 1.4대 1

### 총선후 국민적 관심·위상 반영

국민의당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53개 지역구 중 231개 지역에서 360명이 신청, 경쟁률이 1.4대 1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1개 지역구의 세종시에서 3명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어 전남은 10개 지역구에 26명이, 대전은 7개 지역구에 15명이, 부산은 18개 지역구에 36명이 각각 신청을 했다. 또 49개 지역구가 있는 서울에는 48개 지역에 77명이, 13개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는 13개 지역에 17명이, 60개 지역구가 있는 경기에는 54개 지역에 77명이 각각 공모에 응했다.

4·13 총선에서 8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 모두 당선

시킨 광주의 경우 8개 지역에 8명이, 10개 지역구가 있는 전북에는 10개 지역에 16명이 각각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총선 때와 비교해보면 대구가 당시 1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는 데 그쳤지만, 이번 공모 결과 10개 지역구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경북이 1개 지역구에서 8개로, 부산이 7개에서 18개로 늘는 등 영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당은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253개 지역 중 172개 지역에서 후보자를 낸 바 있다.

반면, 신청자가 없었던 지역은 경북 5곳과 경기 6곳, 강원 3곳, 대구·울산 각각 2곳 등 총 22곳이다.

당 관계자는 “총선 이후 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주거에 복지를 더하다

집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터전입니다.  
집을 지원해주는 것이 그치지 않고 복지까지 더하여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삶의 질이 높은 희망의 터전을 만들수 있게  
LH가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

**LH의 주거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젊은층 등 자력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희망사회 구축과 국민주거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LH의 주거복지 사업분야**

-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각종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사업
- 저소득층의 임차료 혹은 주택개보수를 위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
- 폭방, 가출청소년 등 주거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 주거복지 거버넌스, 지역아동센터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지원 프로그램 등